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 장마철 수리시설 선제 관리로 재해 예방 총력

기사입력 2025-06-19 12:16

[인쇄](#)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지사장 김용구)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수리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과 저수지 수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조치는 이상기후로 인한 극한호우 등 기상재해에 대비해 수리시설의 기능을 사전에 점검하고, 수리시설 인근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철원지사는 관내 저수지, 취입보, 배수장 등 주요 수리시설을 대상으로 수문과 배수펌프의 정상 작동 여부, 구조물의 안전성, 침수 취약 지점 등을 사전 점검 완료하였다. 그리고 극한호우시 하류지역 주민의 재산·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지의 수위관리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 지사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사전 점검과 저수지 수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농촌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korea78123@hanmail.net)